

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첫 입국자 맞이

-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 확대와 양국 간 관광교류 활성화의 첫걸음

- 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2026. 6. 22.(월) 인천국제공항에서 「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」 시행 이후 첫 입국자를 맞이하였습니다.

이번에 입국한 관광객들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첫 입국자로,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·외국인청 관계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대한민국 여행의 첫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.

단체관광객 중 라자 씨(Mrs. Radjah)는 “3번째 한국 방문인데 이번에는 무사증 제도 덕분에 별도의 사증 발급 절차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”며, “서울과 남이섬을 관광할 예정이며 이번에는 한복 입기 체험을 꼭 해보고 싶다”고 하였습니다. “아침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감동을 받았고,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도록 알리겠다”고 하였습니다.

- 특히 이번 첫 입국은 단순한 관광객 입국을 넘어 인도네시아 관광객의 방한 편의를 높이고, 양국 간 관광·경제 교류 확대와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

또한,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민생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“이번 인도네시아 무사증 단체관광객의 첫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한다”며, “이 제도가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와 한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습니다. 이어 “정부는 앞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환경 조성을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”고 말했습니다.

-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“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는 단순한 입국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방한을 반기는 우리나라의 환대의 제스처”로서, “이번 첫 입국을 시작으로 방한관광 확대 및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개방성을 높여가는 과정에 법무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
- 조현 외교부 장관은 “이번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의 시행은 양국 간 인적 교류의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‘한-아세안 CSP* 비전’에 부합하는 것”이라면서, “이러한 조치가 최근 한-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(26.4.1.)과 함께 양국 우호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습니다.

*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(Contributor),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(Springboard),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(Partner)

담당 부서	법무부 출입국심사과	책임자	과 장	김태형 (02-2110-4035)
		담당자	사무관	이동용 (02-2110-4045)
담당 부서	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	책임자	과장	조민준 (02-2100-7581)
		담당자	사무관	서형원 (02-2100-8094)
담당 부서	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진희 (044-203-2871)
		담당자	사무관	장경민 (044-203-2875)